



요약

사설

한처음에 사랑이 계셨다.

양성 여정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

서로를 알아가기

케냐의 ADMA.

규정

ADMA 아이덴티티 심화 및 실습.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내면의 순례자이자 소통의 전문가.

가족의 연대기

- 아드마 프리마리아- 피정.

-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 - ADMA는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 한국- ADMA 그룹의 첫 번째 역사적 만남.
- ADMA Chainca - 포르투갈.

P.1

P.3

P.7

P.8

P.9

P.10

P.11

P.12

사설

한처음에 사랑이 계셨다

사랑하는 ADMA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목의 해를 시작하면서, 마리아와 함께 영적 성장의 아름다운 길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어디로 갈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의 근원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성장하고자 노력해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의 책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 마지막 장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열망에 대해 아름다운 성찰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오티무스여, 그대가 설령 하느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대에게 거룩한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는 욕구는 이 같은 갈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의 욕구가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욕구가 커질수록 사랑도 커져 갑니다. 만일 그대가 간절히 사랑하고자 한다면 열렬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신적 사랑이라는 순금을 얻고자 하는 영적 갈망은 모든 선의 뿌리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닐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내면 생명의 샘이 드러납니다.”

테오티무스여, 하루 종일 이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거룩한 사랑의 불을 밝히소서.
오, 천상 사랑이시여. 제 영혼을 가득 채우소서.”**

그렇다면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갈망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랑하는 것, 우리 아버지이시며,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우리의 삶 전체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마리아는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의 어머니가 되어 성령의 능력이 되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갈망하셨습니다. 올해의 여정에서 마리아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종”**인 그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드마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기도, 겸손, 하느님 사랑에 대한 열망의 학교에서 마리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마리아의 전구를 청합시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겸손한 종’인 그녀가
우리에게 사랑의
선생님이 되어준다.”**



양성 여정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

1)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마태 22, 34-40)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을 통해 그들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양성 여정을 시작한 것은 참으로 섭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복음적이고 더 근본적이며 더 마리아적인 방식으로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도와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깊은 신뢰로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하루 중의 어떤 순간에, 이 깊이 있고 친밀하며 정성어린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이신 당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버지로서 당신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매 순간 우리 마음 안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신학적 이론으로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하셨고, 거룩하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으며, 이는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이끌리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읽고 또 다시 읽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2, 34-40절을 기도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과 지역사회와 아이들과 친구들, 나의 삶의 길에서 만날 사람들과 함께 내 사랑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자랄 수 있을까?”

“주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리사이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했던 이 질문은 제자들을 위한 교리 교육의 핵심이 됩니다. 아마 우리 각자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과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고, 깊이 있고, 감미롭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읍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현존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열어 놓읍시다.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성령께 기도합시다. 이 만남이 사랑의 만남이 되게 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사랑을 배워 봅시다.

- 첫째,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생생하고 주의 깊게 인식합시다. 하느님은 모든 것과 모든 곳에 계시며 이 세상에서 그분의 현존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나 사물은 없습니다.

- 둘째,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심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심을 깨달으십시오.

- 셋째,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고, 하늘에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 넷째, 우리의 친한 친구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구세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느님의 < 사랑하라>는 계명을 충만하게 실현하고자 합니다.



1.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첫번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 사랑의 결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생각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사랑이 커갈수록 더 일치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닮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고, 이것이 창조주께서 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사랑의 “흘러 넘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피조물임으로, 우리와 그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교적 기쁨의 원천은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창조주께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랑받는다라는 확신... 우리에게 대한 열정과 충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큰 사랑이다.”(베네딕토 16세) 가장 충만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에 가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근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행복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의 영원하고 무한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와의 친밀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 삶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끼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며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한 14:6).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어 우리가 당신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진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만족시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찾았을 때에만 비로소 완전한 자신이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알든 모르든 신을 찾습니다”**(십자가의 성녀 테레사 베네딕타 - 에디트 슈타인).

1.2. 하느님의 사랑은 구체적이며 민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의무가 없으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인간적 사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어야만 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열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교부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당신의 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서는 인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셨고, 모든 시대에 걸쳐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거룩한 계시는 우리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인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계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표징과 약속, 사랑의 표현들을 했는지 기억해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창 17,5b)로 부르고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종족”(창 12,3b)들을 축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야훼로 표기되는 그의 신비한 이름은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이 회심을 통해 계약을 새로이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실 것이며, 이는 근본적인 계약과 결정적인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계약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무한히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약의 계시 이후 당신 사랑의 가장 명백한 표징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표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특히 타볼산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징이시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마르 9,2-8)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 봅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느님 사랑의 표징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나는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어머니, 친구와 같은 사랑이기에 육적인 사랑이 아니며... 그분의 현존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사랑의 깊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씀과 성찬례와 화해성사 안에서, 매일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시어, 탄생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느님의 우리를 위한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대해 경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과 사랑의 원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다면, 이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재촉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통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하느님 사랑의 이유입니다.

1.3. 믿음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1 열왕 3,9). 하느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의 만남,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한 체험,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모든 도전과 고통 속에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친구처럼 그분을 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저 없이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은 그분에 대한 앎이며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진실한 선물이며 우리가 간절히 청하면 받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음에 필요한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또한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기 위한 인간의 자유 의지와 명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증이 있어야만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통교를 이루고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경청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성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만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며, 믿음이 우리의 사랑을 뒷받침할 때에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도와 묵상을 위하여

1) 이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크기를 재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사랑은 선의 기쁨의 얼굴입니다. 선은 사랑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2)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 올해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오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달의 약속

주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알아가기

케냐의 ADMA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피터 무고 신부입니다.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저는 동아프리카 케냐 출신입니다.



당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종신서원 한 지 27년 된 살레시오 사제입니다.

신심회의 영적활성자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개월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는 성심 살레시오 협회(Maridi - South Sudan), Alter Boys(남수단 마리디), 모노 신학교(마핑가 탄자니아)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아드마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신부님의 관구에서 신심회는 어느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까?

저희 AFE 관구에서는 시몬 아시라 신부(관구장)의 축복으로 나의 전임자 파울 루세노 신부가 은자이코니에 신심회를 설립하여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지회가 있고 회원은 몇 명인지 알려주시겠어요?

7개 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은 은자이코니 - 47명, 미탕가 - 18명, 카티아니 - 44명, 무탈라 - 27명, 카아리니 - 71명, 키툼기니 - 17명, 키카와니 - 18명 - 총 242명이며 이들 중 카티아니 지회에서 1명이 선종했습니다. 입회지원자는 - 키쿠누아니 - 13, 카우티 - 15, 은자이코니 - 7, 미탕가 - 5, 카티아니 - 3, 키카와니 - 4, 카틀라 - 5, 무탈라 - 2.

신심회는 관구와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구 신심회는 수도회 관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심회 안에서 신부님의 삶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신심회는 서로 다른 지회원들이 매월 마리아론과 특히 도움이신 마리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살레시안 가족의 다른 그룹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신심회 회원들뿐 아니라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성모님의 다양한 축일들을 기념하며 경축하고, 나이로비에 있는 돈 보스코 Upper Hill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지로 순례를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성찬례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며, 마리아께 의탁하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고 마리아께 의탁하며, ADMA 회원들의 가족과 신자들이 자주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도록 돕고, 세미나를 조직하고, 마리아 성지 순례와 마리아 축일(탄생, 승천)에 피정을 실시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청소년 사목을 위한 협력은 필수입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전 세계 아드마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공유와 대화를 위한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정

정체성을 심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



최근에 발행된 규정의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최종 요약본을 제공합니다.

텍스트를 다시 보고 심화하면서 쇄신하고자 한다면 회원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 지회 평의회

각 지회는 형제적 봉사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을 기준으로, 모든 회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선발전 평의회에 의해 조정된다.

- 회장(회의 의장 및 대외 관계에서 지회 대표)

- 부회장

- 경리(국내법에 따라 지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매년 세입세출에 관한 예결산서를 제출한다.)

- 서기(회의 소집 의사일정, 의사록 작성 및 지회 문서고 관리)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의 평의원들로 구성된다. 영적활성자(남.여)도 평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참여한다. 임기는 4년이며, 재선출되면 4년 더 연임할 수 있다. 평의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이러한 임무들 중에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양성과 사도직 계획의 조정, 협의회의 참여를 통한 살레시오 가족과의 연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계획 및 추진이다.

제13조 - 영적활성자들

본회의 영적 활동자들은 살레시오회 관구장 또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관구장이 임명하며, 살레시오 영성에 관한 양성과 지역교회와의 여정 및 친교를 돌본다.

제14조 - 관구 평의회와 국가 평의회

관구 평의회는 지회 및 살레시오 가족의 다른 그룹과의 관계 활성화,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한다. 지회 평의회와 함께 초기양성 및 평생양성의 노선들을 설정한다.

국가적 조정은 필요가 인정되는 개별 관구 및 국가에 속한다.

제 15조 - 프리마리아의 역할

토리노 발도코 성지에 있는 아드마는 돈 보스코께서 설립한 첫 번째 신심회를 물려받은 계승자이므로, “프리마리아”

라 불리운다. 프리마리아는 전세계 신심회를 활성화하고 연결하며 정보제공의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프리마리아 아드마의 회장과 영적활성자는 신심회 전체를 대표하는 회장과 영적 활성자가 된다.

우리 회의 삶의 중심이 돈 보스코의 성모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회장은 도움이신 마리아이시다.

제16조 - 신심회의 세계 협의회

세계 협의회는 살레시오들과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과의 친교 속에서 조정되고 활성화하는 특별한 수단이다. 세계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6년마다 개최되며, 부총장 신부, FMA 총평의원, 프리마리아 회장과 영적 활성자, 평의원 한 명이 참석하며, 본회가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수도자들의 인원수에 비해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어야 한다.

제17조 - 본회의 물질적 재산

도움이신 마리아회는 교회의 공적 법인으로 교회법과 다양한 나라의 법률에 따라 자기 소유에 대한 물질적 부를 취득하고 점유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을 갖는다.

제18조 - 규정의 번역

다양한 언어로의 규정의 번역은 승인된 현재의 원문에 충실하고 적합하여야 하며, 프리마리아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Pascual Chavez 신부는, “**마리아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록했다.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거 400주년

내면의 순례자이며 의사 소통의 예술적 지혜를 지닌, 의사 소통 전문가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프란치스코는 권위 있는 의사소통 전문가입니다! 그는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그는, 비전, 대화, 식별, 선택과 결정, 통치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종교적 긴장감을 고려해 본다면,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자 교회의 사목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있었으므로, 조직적, 제도적 의사소통의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교구 차원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일치를 구축하는 동시에 강한 충실함과 책임감으로 가톨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사 소통 정책을 수립합니다.

교황 베네딕토는 이 영적 능력과 의사 소통 능력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트렌트 공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도, 설교가, 작가이며, 행동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개신교인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며, 필요한 신학적 논쟁을 너머 개인적인 관계와 애덕의 효과를 체험합니다. 그는 유럽의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 중재와 화해를 통해 외교공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2011. 3. 2.)

프란치스코의 목자로서의 마음은 교회의 교리를 수호하고, 그의 백성을 동반하며, 성직자를 양성하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출판인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그는, 1598년 5월 토리노 대사에게 이탈리아어로 보낸 편지에서 출판인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필요한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안느시에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매시간 아주 전파력이 큰 소책자를 보내고 있으며, 많은 가톨릭 서적들은 안전하게 리옹으로 보내야만 출판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자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LI 337).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평생 동안, 거룩하면서도 지혜롭게 친교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했으며, 개별적이면서도 여러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일치와 친교를 살았습니다. 그의 사후에, 그의 삶과 가르침은 그의 시대와 유럽에서뿐 아니라, 교회와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언론과 작가의 수호성인이며, 오늘날에도 디지털 및 가상 세계에서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Francesco de Sales는 성직자와 신도 사이의 화합을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합니다...”



가족의 연대기

아드마 프리마리아- 피정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Alejandro Guevara Rodriguez 신부와 Roberto Carelli 신부의 지도로 7월부터 8월에 걸쳐 진행된 피정에는, 4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의 피정 주제는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시편 63, 4)였으며, 이에 따라 360° 가족 체험을 위해, 부모들은 전례와 침묵 기도를 통해 세 가지 묵상으로 초대되었습니다.

1. 새로운 생각: 말씀과 기도의 재발견, **2. 새로운 삶:** 덕, 특히 겸손과 사랑으로 새롭게 성장하기, **3. 새로운 관계:** 돈 보스코의 두 가지 기둥에 관한 꿈, 예수와 마리아, 성체와 묵주기도 그리고 영성체와 고해성사 잘 바치기. 이러한 성찰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신심생활 입문”에 나오는 몇 구절을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피정의 체험은 올 한해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 따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라는 가르침을, 부모로서 자녀들인 어린이, 청소년, 이미 장성한 자녀들 안에서 또한 가족의 활성자로서, 준비된 놀이, 기도예로의 동반, 양성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며 그 결실에 대해 생각하게 초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참가자들의 후기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죄, 두려움, 가련함,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보다, 나를 앞서 가시며 모든 것보다 크다. 나는 사랑받았고, 그분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그분을 찾고 있다. 하느님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나는 이 선물을 기뻐하고 이 선물에만 나의 마음을 열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에 나를 맡긴다. 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할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기 위해 나는 정말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 놓아야 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고 있는지, 특히 피정 동안 기도, 성시간, 나눔, 공동체 시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 모든 것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다!! 나는 집에 “사랑의 애덕”을 가지고 왔다. 그 덕분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 피정을 통해서 나는, 참된 겸손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에서 깨어나, 하느님만으로 충만한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정은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려는 체험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봉헌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은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해 말해준다. 또한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열고 여러 가족과 만났다.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은 모두 오락을 통해 기쁘고 즐거웠으며, 다른 가족의 어린이들, 활성자들과 함께 하는 행복을 맛보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년 해오던 프로그램이지만, 우리는 연례적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했다.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 - ADMA는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들과 젊은 회원들이 있다

동아시아-오세아니아(AEO)의 도움이신 마리아 협회(ADMA) 제2차 대회가 2021년 9월에 개최된 이후, 살레시오 가족의 중요한 지체인 아드마는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지회, 새로운 입회지원자, 새로운 젊은 ADMA와 파키스탄 및 솔로몬 제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의 첫 ADMA 회원의 탄생을 그것이다. 확실히 이곳에는 세 가지 핵심 단어인 **성장 - 젊음 - 양성이 있다.**

AEO 지역의 ADMA는 2021 대회 이후, 전 필리핀 관구장 고도프레드 아티엔자 신부가 지역 대표 영적활성자로 임명되었으며, 많은 살레시오 수도회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FMA)의 영적활성자들과 함께 아드마를 동반하며, 관구와 지역 차원에서 영감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이동과 집회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면서 동티모르 ADMA도 전국 대회(2022년 10월)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AEO 지역에서의 ADMA의 카리스마적 성장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최근의 동향이다.

- 지난 7월 16일 마닐라에서는 필리핀 북부 지방(FIN)의 살레시오 수도회와 FMA의 영적활성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ADMA 지도부(마닐라, 16)가 결성됐다. 지도부 결성의 목적은 전국 ADMA 센터의 관리와 신원, 정체성 강화이다.

- 필리핀 남부 ADMA(FIS) 지도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 영적활성자인 아티엔자(Atienza) 신부로부터 아드마의 활성화와 리더십 함양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ADMA Giovani 그룹의 구성원 대다수가 있는 Olango 섬에서 시작되는 젊은이 아드마 그룹과 함께 새로운 지역센터도 동반하게 된다. 이 새로운 센터는 살레시오회나 FMA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몇 안 되는 ADMA 센터 중 하나이며, 진정한 “선교적 ADMA 체험”을 하고 있다.

- 티모르의 ADMA 젊은이 그룹 (TLS)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 최근 Venilale의 ADMA 센터에서도 ADMA젊은이 그룹을 양성하고 있다. 동티모르에는 900명이 넘는 아드마 회원이 있지만, 대부분 노년기 회원이어서, 협회의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젊은이 그룹은 큰 영향을 준다. 영적활성자인 FMA 캐롤라인 수녀는 이들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다.



- 파푸아뉴기니(PGS) 포트모르즈비에서 젊은이ADMA를 위한 두 번째 양성 과정이 그룹의 영적활성자인 Alice Fulgencio 수녀 (FMA)에 의해 시작되었다.

- 한국(KOR)의 두 ADMA 센터(광주와 서울)는 새로운 회원 모집과 입회지원자 양성을 시작했다. 살레시오 수도회와 FMA의 새로운 영적 활성자들은 두 수도회 관구장의 지지를 받으며, 아드마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태국(THA) 방콕의 ADMA 센터는 Aaron Alcoseba 신부와 센터의 평신도 활성자들의 끊임없는 인내로운 동반으로 양성과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은 모든 살레시오 가족의 보물이지만, 특히 ADMA는 더욱 마리아를 공경하고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를 위해 ADMA 공식 사이트 외에, 도움이신 마리아께 바쳐진 새로운 국제 사이트도 2022년부터 활성화되어 32개 살레시오 가족에게 제공되었다: <https://ausiliatrice.org>

ADMA 세계 영적활성자(Fr Alejandro Guevara, SDB)에 따르면, “이 새로운 공간은 우리 모두 마리아의 자녀가 되도록, 복되신 동정 마리아 안에서 이루신,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에 대한 감사이다. 그것은 마리아의 모든 자녀들에게, 돈 보스코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공경되어 온 우리의 마리아 신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이며, 성모님 주위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만나게 하시는 초대이기도 하다.”

한국- ADMA 그룹의 첫 번째 역사적 만남



한국의 서울 - 2022년 7월 -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두 그룹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ADMA)가 설립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광주(2017)이고 두 번째 그룹은 서울(2021)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남서쪽 해안에 있는 살레시오 내리 피정의 집에서 두 그룹의 ADMA가 함께 모였다. **24명의 ADMA 회원(입회지원자 3명 포함)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동 기도, 토론, 양성, 정보 교환 및 오락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영적활성자들과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 살레시안들의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서울과 광주에 있는 두 센터의 회원도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광주에서는, SDB 영적활성자인 우 헨리코 신부의 주례로 거행된 미사 중에 8명의 새 회원이 서약했다.**

ADMA Chainça - 포르투갈



이 그룹은 포르투갈의 Portalegre / Castelo Branco 교구 Abrantes의 S. Vicente 성당, 더 정확하게는 Chainça라는 시골의 Nossa Senhora das Graças 공소 소속으로 2012년 32명의 멤버로 시작되었다. 공소는 본당 신부에 의해 관리된다. FMA는 공소 사목을 위해 2005년에 이곳에 파견되었다. 이후 2019년에 5명의 ADMA회원이 증가했고, 같은 해에 주교와 관구장에게 회원에 관해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 회의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다. 팬데믹 기간에는 “**도움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이니셔티브로 서로 전화하기를 통해 하나가 되었다. 특히 이 그룹은 하느님 백성을 위한 사목과 교리 교육을 위하여 부단한 기도를 드리는 그룹이다. 이 지역에서 미사와 묵주기도, 화해성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90%가 ADMA이다. 현재 가정에서 교리교육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꾀하면서 협회를 더 젊어지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들(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